

어린이 독서주간

어린이회관, 韓國圖書館協會, 大韓出版文化協會 등 세 團體는 每年 5月 1일부터 1週日동안을 「어린이 讀書週間」으로 결정하고 금년에 그 1회 독서주간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주간은 처음으로 실시되어 어린이 독서현장의 제정 선포식을 비롯한 여러 行事가 實施되었는데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 독서현장 선포식

첫날인 5月 1日 午前 11時에는 어린이회관 무지개劇장에서 第1回 어린이 讀書週間 宣布式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大統領令愛 朴槿惠嬢을 비롯하여, 韓國圖書館協會長 李瑄根博士, 文教部長官을 代理하여 李尙圭企劃管理室長, 새싹회 尹石重會長 등의 各界 代表 人士와, 出版人, 女性團體 幹部, 市內 國民學校生 등 約 4百名이 참석하였다.

먼저 간단한 國民儀禮가 있었고, 主催 團體代表로서 李圖協會長의 記念辭가 있는 뒤 韓萬年出版協會長의 國民教育憲章 낭독, 育英財團 어린이회관長 申明淳씨의 어린이 讀書憲章 낭독, 文教部長官의 祝辭(企劃管理室長 代讀), 그리고 朴槿惠嬢의 뜻깊은 致辭가 있었다.

이 式場에서 出協은 어린이 독서현장이 인쇄된 책반침한 장식을 參席者들에게 紀念으로 주었다.

어린이 독서현장

1. 어려서부터 좋은 책을 읽어 마음의 양식을 장만한다.
2. 책에서 옛것과 새것을 배워 참 지식을 만든다.
3. 책에서 바른 글과 바른 말을 익혀 바른 마음을 닦는다.
4. 책을 읽어 즐겁고 보람있게 자라며 삶의 힘을 기른다.
5. 책을 읽어 슬기와 용기를 갖춘 쓸모있는 한국 사람이 된다.

1976년 5월 1일

▲ 記念辭(本會 李瑄根會長)

어린이운동은 1921年 方定煥선생의 先唱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운동은 이미 植民統治를 받게 된 우리 民族의 光復運動의 一翼이었고 日帝總督治下에서는 抗日獨立運動의 一翼으로 발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連綿한 어린이운동의 그 精神을 오늘의 새마을 운동으로 계승하여 國力富強으로 전개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운동은 보다 科學的이고 生産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3個團體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좋은 책을 읽혀서 바른 생각과 명랑하고 밝은 情緒와 뛰어난 지혜를 갖게하는 것이 우리 民族의 앞날의 번영을 약속하는 지름길임을 확신하고 어린이의 讀書에 대한 社會의 관심을 한층 일깨우며, 한편으로는 良書를 出版하여 어린이들에게 더 많이 읽히도록 하는 운동을 펴기로 한 것입니다.

잠시 우리나라의 독서운동을 살펴보면, 첫째 國民學校의 경우, 6367개의 학교 가운데 約 33%인 2116校에 圖書館이 設置되어있으며, 中學校의 경우에는 전체 2026校中 約 47%인 959校에 圖書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大都市의 경우 學校圖書館은 대부분 갖추고 있으나 어린이에게 필요한 책을 골고루 갖추어 놓고 있지 못하며, 學校圖書館利用體制도 원활하지 못한 것이 감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어린이의 생활환경을 살펴본 한 調査에 의하면, 하루의 時間利用에 있어서 學校공부에 소요하는 시간이 가장 많고, 다음이 친구와 놀기, TV視聽, 집안일 돕기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學父母들의 집에서 보내는 어린이에의 關心度가 아직 높지 못하며, 특히 父母가 어린이 讀書에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比率이 24%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現在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은 全世界에서 유례없는 速度로 急成長하고 있습니다. 農村電化推進으로 電燈 없는 農家가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또 道路網이 전 부 舗裝化해서 路面이 평탄하여 모든 乘用車內에서도 진동이 별로 없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根源的인 讀書환경의 改革은 우리의 讀書生活氣風 조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先

進外國의 그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의 行事가 저희 3團體의 行事로 그치지 말고, 汎國家的인 운동으로 擴散되어 所期한 바의 어린이 讀書가 어른의 生活과 密着하도록 이끌어 갈게 되도록 바랍니다.

▲ 致辭(大統領 令愛 朴槿惠)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는 내빈 여러분, 어린이들을 것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어머니 평생의 뜻이 담긴 이곳 어린이회관에서 어린이독서현장 선포식을 가지게 되어 무한히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뜻깊은 행사를 마지하여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 독서주간을 따로히 만들어 책읽기를 장려하고 있는 뜻을 잘 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노력으로 우리 나라는 나날히 발전하고 있고, 또한 더욱 번영된 내일의 희망속에 다가오는 이때, 멀지않아 이 나라의 모든 일은 어려운 일이거나 큰일이거나 가리지않고 지금의 어른들을 대신하여 젊어지고 나아가갈 어린이들은 지식이 풍부하고 슬기롭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식과 슬기로운 것은 가만히 앉아서 나이만 먹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1초라도 아껴 배우고 익혀서 얻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움으로 훌륭히 이끌어주는 것이 예로부터 좋은 책들이었습니다.

책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를 향해가는 길을 모르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산에 가고 싶어도 길을 못찾으면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는 길이 여러 갈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물론 부산까지 가는 데는 고속도로를 택하겠지요. 훌륭한 지식으로 이끌어 주는 고속도로는 바로 그 책입니다. 책은 언젠 어디서나 진실한 친구도 되어주고, 친절한 충고자도 되어주며, 새로운 지식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안겨주기도 하며, 많은 생각을 통하여 창조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르는 것이 죄가 될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독서현장 제5장에 「책을 읽어 슬기와 용기를 갖춘 쓸모있는 한국사람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 바른생활 태도를 배워서 정말로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자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채윤과 신강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반딧불과 눈으로 독서를 하여 대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토록 책을 읽고 배우려했던 뜻을 우리 어린이들은 마음에 새겨 환한 불빛아래에서도 독서를 게을리하는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중에도 훌륭한 독서가가 많았습니다. 그중 우리 한글을 지으신 세종대왕은 대 독서가였다고 합니다. 훌륭한 업적뒤에는 이와같이 많은 독서와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린이 여러분을 위한 독서현장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어린이 여러분은 다시한번 독서의 중요함을 깨닫고 적극 실천하고, 주위 친구들에게도 권하여 서로 읽은 것은 발표나 토론도 하면서 사고와 창조의 힘을 넓혀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튼튼한 팔다리를 갖추기위해 영양있는 음식을 원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항상 알찬 발전을 위해 정신적 양식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독서주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참된 전진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의 보배인 어린이들이 밝고 슬기롭게 자라도록 내빈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계속적인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祝辭(柳基春 文敎部長官)

어린이회관과 出協, 圖協의 3個團體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 어린이 讀書週間을 制定 宣布했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하여 많은 業績을 쌓아 올린 民間團體가 이토록 뜻깊은 사업을 앞장서서 더 주신데 대하여 敎育行政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어린이를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나가는데 讀書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이번의 讀書憲章에서도 밝혀 있듯이 책은 마음의 양식이 되고 바른 마음을 닦아주며, 자라가는데 필요한 힘을 길러주는 原動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린이 讀書週間의 宣布를 계기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책을 효과 있게 많이 읽힐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研究가 있따라야 할 줄 압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앞으로 全國의 어린이에게 오늘보다 더 좋은 많은 책을 읽혀가지 못한 다면 讀書週間 行事도 독서현장도 하나의 行事나 口號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讀書와 讀書指導에 관한 모든 일들이 이나라의 내일을 젊어지고 나갈 어린이 敎育에 奉仕한다는 宗旨와 使命을 가지고 더 좋은 책을 만들어 더 많이 읽히도록 모든 條件을 改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 고마우신 여러 어른들이 이런 讀書週間을 만든 뜻이 이나라 장래의 기둥이 될 보배로운 여러 어린이들에게 귀한 책을 많이 읽히자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주위 어른들의 협조를 받아 良書를 골라서 많이 읽고 생각해서 北韓共產集團을 이길 수 있는 어린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어린이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바쁜 틈에 시간을 내어 책을 읽읍시다. 그리고 책속에서 새 歷史를 創造해갈 수 있는 슬기로운 길을 찾아 봅시다.

끝으로, 이번 일을 주최한 3個 團體의 무궁한 발전과 어린이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여 마지않습니다.

■ 어린이 圖書展示會

이 週間中 어린이회관 圖書室에서 어린이 圖書展을 열었다. 첫날 宣布式이 끝난뒤 朴槿惠嬢의 開幕대어프 캠티ング로 圖書展은 幕을 열었다. 槿惠嬢은 展示舍를 모조리 돌아보며 우리나라 어린이圖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어린이 圖書展에는 啓蒙社, 桂林出版社, 信進出版社, 乙酉文化社, 語文閣, 主婦生活社, 教學社, 國民書館, 一志社, 文泉社, 金星出版社, 太極出版社, 아이디 어 회관이 單一展示舍로 參加하였고, 堅志社, 학원출판사, 한국보이스카웃연맹 出版部에서 綜合展示版에, 그리고 中央圖書展示館에서 어린이 圖書만 팔라가지고 參加했었다.

입장권을 사가지고 어린이회관에 들어오는 觀覽者들만이 出入하게 되어있는 관계인지, 中央公報館에서 全國圖書展示會만큼은 參觀者가 많지않았다.

■ 學校讀書指導에 관한 세미나

讀書週間 세계날인 5月 3日 午前 11時부터 午後 5時까지 出版文化會館講堂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全國各道 獎學士와 教育者, 出版人, 兒童文學家 등이 참석하여 學校圖書館의 問題들을 분석하여 어린이들의 讀書환경 改善方法을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學校圖書館은 어린이들이 가장 친숙해 질 수 있는 주변의 독서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各 圖書館 必携의 參考文獻

R. R. BOWKER COMPANY

BOOKS IN PRINT: Author Index: Title Index 1974, 4 vols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1974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5/e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3/e

MARQUIS WHO'S WHO, INC.

Who's Who in America, 38/e
Who's Who in the World, 1/e

BURT FRANKLIN

Courant, M.	Bibliographie Coreenne, 3 vols	\$ 90.00
Howorth, H. H.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4 vols.	\$ 200.00
Kerner, R. J.	Northeastern Asia, a selected bibliography: contributions to the bibliography of the relations of China, Russi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Manchuria, and eastern Siberia, in Oriental and European languages, 2 vols	\$ 57.50

■ 弊社에서는 上記 出版物의 韓國總販으로 注文을 拜受하고 있어오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株式會社 汎文社

서울 鍾路區 鍾路 1 街 40 電話 (72) 5131-33